

# 미국 “北 미사일 ‘몸값 올리기’ 안 통해”

### 북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 틸러슨, 대북 압박 지속 경고

### 北 수년 내 핵 실전배치 가능성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 시 대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거듭 보냈으나, 북한이 전혀 이렇듯 없이 핵보유국을 향한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한의 향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만약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힘’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미국이 가만히 지켜보지않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를 시험 발사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사흘 뒤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흥석현 대북 특사 방미를 계기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재확인하고 핵 포기과 대화를 거듭 종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흥 특사를 만나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교체도, 정권 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끊임없는 강경 발언으로 ‘4월 위기설’을 낳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며 북 체제 보장 등 자신의 발언을 북한이 어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의 첫 관문은 의식이 결핍 만큼 충분한 기간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흥 특사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지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뒤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지는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도발이 계속되는 한 미국의 대북 고립의 강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이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시험은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고 강력히 비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북한이 설립 미사일 능력 향상을 과시하며 대화 국면 이전의 ‘몸값 올리기’ 꼼수를 구사하더라도 역대 정부처럼 말려들진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미 외교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핵보유국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해 앞으로 수년 내에 실전 배치까지 앞둔 상황이라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이든 미국의 독자제재이든 간에 북한을 향해 뭔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공지 몰린 트럼프, 9일간 해외 순방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멜라니아 부부(오른쪽)가 21일(현지시간)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과 압델 파타 엘시시(왼쪽) 이집트 대통령과 수도 리야드 월드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의 ‘러시아 스캔들’을 뒤로하고 총 9일간의 중동·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날 ‘이슬람 아랍-미국 정상회담’에서 이슬람권 55개국 정치 지도자들과 만났다. /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 北 미사일 대응방안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외교 관계자는 21일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500여km를 비행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번째이며 지난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한 지 일주일만이다.

안보리는 지난 16일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전인 14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 커제 9단 vs 알파고 오늘 중국서 대국

### 3차례 일대일 맞대결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계 바둑 최고수인 중국 커제(柯潔) 9단의 대결에 중국 바둑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 답마인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저장(浙江)성 우전(烏程)에서 ‘바둑의

미래 서밋’(Future of Go Summit) 행사를 통해 알파고와 중국 고수들과의 바둑 대국을 개최할 예정이다. 커제 9단과 알파고는 23일, 25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일대일 맞대결을 펼친다.

써우후(搜狐)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 해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이

은 이번 2차 인간-기계 대결이 “인류 존엄의 전쟁”이라며 생중계 소식을 전하면서 관심을 부각하는 데 열심이다.

하지만 대체로 열기는 작년만 못하다. 바둑대결 승부 자체보다는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과 진화 속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체전 등을 통해 인간과 AI가 손을 잡는 모양새도 연출하면서 ‘AI의 미래’라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우문술의 아들 우문화급

우문화급(宇文化及, 583-619)은 수나라 대군 무전 출신으로 권신 우문술의 장남이다. 강도로 내려간 양제를 살해하고 새 왕조를 세웠으나 반군 지도자 두건덕에게 피살되었다.

그는 양제가 태자 시절 전우승이 되고 태자복으로 승진했다. 양제 즉위 후에는 우둔위장군이 되어 권세를 휘둘렀다. 양제는 세 차례의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끝나 큰 곤경에 빠졌다.

대운하와 궁궐 조성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국가재정이 고갈되었다. 도처에서 수나라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이궁으로 남하해 황락에 빠져들었다. 대장군 조제는 “지금 백성은 피로하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몰았다. 그는 “천하가 원한을 같이 한다. 어찌 한사람에 그치겠는가”라는 냉담한 답을 들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나는 양제의 외침에 반역 집단의 일원인 마문거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전해진다. “폐하는 종묘를 유기하고, 유람하며 돌아다니기를 그치지 않았다. 밖으로 정벌에 힘썼고, 안으로 사치와 음란이 극에 달했다. 장정들을 죽이고 아녀자를 도랑과 골짜기에 몰았으며 백성은 도적으로 도처에 방기되었다. 대운하와 궁궐 조성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국가재정이 고갈되었다. 도처에서 수나라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이궁으로 남하해 황락에 빠져들었다. 대장군 조제는 “지금 백성은 피로하

## 수양제 배신... 섭정하다 반란군에 피살

고, 창고는 비어있으며, 도적은 봉기하고, 급령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황제께서는 수도로 돌아가 백성들을 안정시키기를 바란다”고 간하었지만 허사였다. 강도행은 우문술이 권한 것으로 수도 장안과 동도 낙양이 반란으로 위태로울 경우 강남에 위치한 강도가 좋은 방어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18년 우둔위장군에 봉해져 양제의 최측근이 되었다. 양제는 100여개의 방을 두고 미녀를 배치해 날마다 새 방을 찾아가는 황을 계속했다. 거울을 들여다 보며 곁에 있는 소환후에게 “좋은 머리, 과연 누가 이것을 자를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문술은 양제 말기 죽음을 맞이하면서 근신 처분 상태에 있는 장남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다. 부친 덕에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복귀했다. 양제의 친위대는 효과(驍果)로 장안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강도에 장기간 주둔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만이 컸다. 그는 동생 우문지급과 함께 황제 친위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쿠데타를 시도했다.

618년 3월 반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궁궐에 진입했다. 호부중랑장 사마덕감과 감문직감 배건통이 쿠데타의 핵심이었다. 양제가 취침한 성상전으로 돌입하던 중 독고성이라는 늑은 장군이 막아섰지만 잡살당했다. 양제는 침실에 들어온 사마덕감에게

우문화급 세력은 강도를 버리고 장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상했다. 친위대 뿐 아니라 수천명의 궁녀도 포함된 대규모 집단이었다. 황제를 살해한 집단이므로 사기가 무척 낮았다. 궁녀들과 장수들은 배를 타거나 수레를 타고 병사들은 걸어갔다. 출발 직후 우문화급과 사마덕감 세력간 싸움이 일어났다. 우문화급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사마덕감의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전원이 살해됐다. 장안으로 돌아가려던 도중에 있는 동도 낙양을 통과해야 했다. 낙양은 이말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말은 부장 서세적이 군사 요충지 여양을 지키게 하고 뒤에서 공격하는 작전을 폈다. 우문화급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말에게 투항했다. 화친을 제의하는 척 하면서 우문 진영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결국 이말을 죽이지 못하고 복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위헌에서 황제 양호를 죽이고 제위에 올라 국호를 허 연호를 전수로 정했다. 그러나 주력군이 붕괴된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이말, 왕세충 등 다른 반란 세력으로 도주했다. 결국 북쪽의 요청으로 달아났다가 두건덕군에 사로잡혀 동생 우문지급, 아들 승기, 승리와 함께 처형되었다. 그의 머리는 돌궐의 의성공주에게 보내졌다. 그녀는 황족 출신으로 수나라 멸망을 크게 원통해 했기 때문이다.

<h3>신안동, 해송빌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li> <li>■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li> <li>■ 방3, 거실1, 전방좋은</li> <li>■ 신안다리 바로 옆</li> <li>■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li> <li>■ 시세 - 1억 2천만원</li> <li>■ 매매 - 1억 5백만원</li> <li>■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li> <li>■ 주인직매</li> <li>H. 010-8902-7900</li> </ul>	<h3>나주, 다도면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li> <li>■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li> <li>■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li> <li>■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li> <li>■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li> <li>■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li> <li>■ 매매 - 상담후 결정</li> <li>■ 주인직매</li> <li>H.010-3605-5000</li> </ul>	<h3>광양, ㄷ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li> <li>■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li> <li>■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li> <li>■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li> <li>■ 모든업종 오픈 가능</li> <li>■ 감정/시세 - 13억</li> <li>■ 매매 - 6억 5천만원</li> <li>■ 주인직매</li> <li>H.010-3605-5000</li> </ul>	<h3>금호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구 금호동 243-6번지</li> <li>■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li> <li>■ 7층건물중 701호, 7층 전체</li> <li>■ 법인체 인수가능</li> <li>■ 시세및 감정 - 7억</li> <li>■ 급매 - 4억 8천 5백만원 (대출 4억 2천 5백만원 포함)</li> <li>■ 주인직매</li> <li>H.010-3605-5000</li> </ul>
--	--	--	---